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결코 잃지 않을 상급

(마 10:40-42)

신앙생활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질주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아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빌 3:14).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선지자와 의인과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한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선지자는 주의 종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중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를 영접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왕상 17장).

또 우리가 영접해야 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극진히 영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다문화 가정들, 탈북자 등 이런 작은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2.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을 담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광야에는 피곤에 지쳐있는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소망을,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더위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시원한 얼음냉수를 대접해 주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3. 영접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1-2).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거룩한 영접의 습관’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은 그저 습관처럼 손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었다고 증거하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선지자와 의인과 작은 자를 영접하십시오. 선지자의 복, 의인의 복,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Reward We never Lose

(Matt. 10:40-4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t is our life of faith, in a word, that we must 'run' fast to do our best in order that we can receive a reward from God. Even when we receive a prize in the world, we are happy. If we receive a prize that can never disappear before God, What a wonderful and happy prize it is! The Apostle Paul said, "I press on toward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d called me heavenward (Phil. 3:14).

If so, what do we have to do in order that we can receive the wonderful prize from God?

1. We must greet a prophet, a righteous man, and a little man

The prophet Jesus first of all, mentioned is his disciple. The widow at Zarephath in poverty who greeted Elijah and received God's blessings was a good example of greeting a prophet (1 Kin. 17).

The righteous men whom we must also greet are all of God's people who believe in Jesus and received the righteous man's reward. Therefore, we must greet each other with all our heart. Moreover, those who greet such as an isolated man, weak man, poor man, man under false accusation, the disabled, multi-cultured family, and North Korean defector will win the prize from heaven. Jesus said that he never forgets their prize.

2. You should greet a man with a glass of cold water and with your love

There were many tired and weary travelers on the Jewish plain where Jesus had lived. Jesus said that if we would greet those who were thirsty and suffered from hardship with a glass of cold water, how wonderful thing it is.

The thing we are able to share with a neighbor is good even if it is not expensive one. Just as it is necessary to comfort to those who need to be consoled, bring hope to the desperate man, and prayer for those who are lonely, so we serve those who are thirsty in the hot weather with a glass of cold water.

3. You must receive a man as if you receive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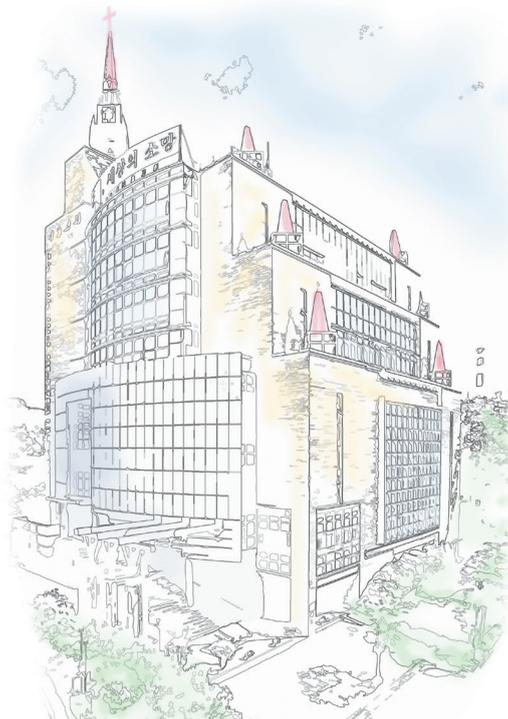
"Keeping on loving each other as brothers. Do not forget entertaining strangers, for so by doing some people have entertained angels without knowing (Heb. 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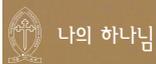
The writer of Hebrews explained 'Abraham's holy habit'. While, he said that, though Abraham received visitors as his habit, he testified to God's messengers through his habit. Like this, the

blessings that Abraham received were indescribable.

My beloved Christians,

Just like you receive God with all of your heart, sincerity, and love, by receiving a prophet, righteous man, and a little ma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enjoy the blessings of a prophet, a righteous man, and the blessings of dew in the sky, and fertile land as much as you plea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감사
감사
감사



한상은 목사

201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5,6,7,8교구를 섬기면서 그동안 섬겼던 근거리 교구들과는 다른 상황에서 정성껏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었고, 사랑부, 비전2020, 신촌가정부, 주부대학, 전도위원회 등의 부서와 위원회를 통해서도 헌신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보여주시는 귀한 모습들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2014년 저는 호산나대학 교목으로 섬기며, 교역자로서 이제까지 걸은 길과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주님 앞에서 반성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드리면 기도드릴수록 감사드리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철 목사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구를 충성되게 섬기신 8, 9, 10, 12교구의 모든 리더들과 다락방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소망부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모이기를 즐거워하신 살롬경로대학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디아

스포라부의 선생님들과 형제자매들, 섬김의 본이 되신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식당/차량관리부의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순례자 편집위원들이 보여주시는 모든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더욱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석남 목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13교구를 최선을 다해 섬기신 교구장 장로님, 부교구장 집사님, 간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임원진을 비롯한 교구 일꾼 여러분들의 수고, 교구특별찬양을 준비하며 보여주시는 교구식구전체의 열정과 헌신은 두고 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헌신, 선교위원회의 숨은 보석같은 섬김의 일꾼들과 국내외 84명의 파송선교사님들, 기도로 후원하는 25개의 기도팀장님들과 팀원 여러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섬겨오신 도서실 관리부 여러분의 헌신과 추억은 교회의 새로운 비전의 발걸음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늘 미소로 충성을 다하시는 방송실, 멀티미디어팀원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역자실을 은은한 커피향으로 채워주시는 COFFEA COFFEE 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임동설한을 복음의 열정으로 녹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70인 전도대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황 광 목사

2013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와 한 배를 타고 달려온 한 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 준 사역들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임을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섬겨주셨던 11,14,15교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교육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를 다하셨던 부서 교역자님들과 교육위원회 모든 장로님과 섬김위원들,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세례교육부 선생님들, 아주 작은 섬김에도 기뻐하고 감격해 하시던 마가 다락부 모든 성도님들,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금요기도 찬양팀,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새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유문건 목사

살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릴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한 해동안 충성되게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1교구와 16교구의 신실하신 일꾼들, 새가족위원회의 귀하신 교사들, 찬양위원회의 모든 대

원들, 교회의 기동 스테반회원들, 서울성경대학에서 사랑의 수고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의 자랑과 긍지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박영준 목사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 에 달려 있다.” 존 밀러가 한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부터 젖어 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그토록 기다리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길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몸 된 서울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부임하던 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방향으로 인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4, 5, 6, 7교구 식구들과 찬양위원회와 사랑부, 설교사역도고부, 금요기도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길 원하며, 2014년 새해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비전으로 함께 도약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원영 목사

먼저 이렇게 건강한 신학적 기초와 신앙의 정통성을 지닌 서울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감성과 지성의 조화를 지니신 담임목사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장로님들과 귀한 동역자 되신 부목사님들을 만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3교구, 14교구, 소요리문답, 비전2020, 상담부, 목회자신학 세미나의 귀한 리더분들과 성도님들을 만난 것, 앞으로 만나게 될 소중한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하고 귀한 서울교회가 2014년 펼쳐질 사역과 목양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에는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점이 하나님의 섭리의 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권 목사

부족한 중을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서울교회의 다음세대를 책임질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는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관심과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2014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성되지도 않은 자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충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 1,2부 & 신혼가정공동체 지체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임규현 목사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되돌아보니 부족했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많았지만, 감사 드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에바다부가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푸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에바다부를 섬기며 수고해 주신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농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애써주신 수화통역 봉사자들도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가 한 해 동안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온 에바다부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더 큰 비전을 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기도드리며 더욱 성숙해가는 에바다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에바다부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서울교회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성 목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부서 부서별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유년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11시 20분 어린이 성경읽기 모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마가 복음을 다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천세중 목사

2013년은 우리 가정에 여러가지로 감사한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서울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고등부 학생들과 헌신적인 교사분들을 만나서 동역하게 된 것 그리고 청년부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보내는 첫 해. 참 감사와 기쁨의 한 해였습니다.



노정오 목사

2013년은 진정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갑작스런 수술과 체중감량 그리고 체력저하가 따라 오면서 사역에 대한 자신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한 새로운 영적 활력을 주셨습니다. 10명의 중등부 학생들이 함께 해주었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모든 영적집중을 제자훈련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의 훈련이었지만 말없이 잘 따라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침의 사역도 힘이 드는데 특별히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교사마일'을 준비해 주셨고 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녹여 내리는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2013년에 우리가 돌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학생들은 앞 다투어 소망의 집(장애우시설)으로 향해 주었습니다. 울 중등부 모두 사랑합니다.



배경애 전도사

2013년 한 해 동안 70인 전도대의 사역 현장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0인 전도대 대장님 차장님, 각 팀의 팀장님, 축조총괄팀장님, 서기님, 회계님 충성스러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70인 전도대 모든 분들께 사랑하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1,2권사회, 살롬 권사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및 모든 권사님에게도 섬김에 감사 드립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12장24절 말씀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최민혁 전도사

2013년은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바뀌며, 신대원을 졸업하며, 거주하는 곳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 크고, 더 넓은 것을 보고 생각하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에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여정에서 만나게 된 섬김의 일꾼들은 제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어린이 찬양 예배 선생님들, 꿈나무 영어성품스쿨 선생님들의 교회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구본예 전도사

2013년은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복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된 서울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너무나 사랑스러운 영, 유아부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영, 유아부를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도에는 영, 유아부와 더불어 수요어린이 예배를 섬기게 되었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코람데오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성도님들께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장재원 전도사

201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 감사할 기도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울교회에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하게 된 것이 제게는 참으로 귀한 감사제목입니다.

처음 온 교역자가 낯설어하지 않을까, 인수인계에 공백은 없을까하여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옆에서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부장, 부감님을 비롯한 교사 분들과 청년부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2013년 젊은이 예배가 처음으로 독립되어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준 우리 모든 청년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준비되는 예배와 모임이었기에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은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했을 그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 서울교회 10대뉴스

1. 교회학교별 예배 개실

우리 교회는 2000년 대치동 시대 이후 1부 가족예배와 3부 청년예배를 드리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자체 예배를 신설하여 부서별로 예배를 드렸다.



2. 2013년 임직식

지난 5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12대 장로 4명, 13대 안수집사 31명, 12대 권사 63명이 교회 설립 22주년인 11월 24일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우리교회는 시무장로 29명, 안수집사 274명, 권사 414명이 되었다.



3. 카자흐스탄 소녀 살리당 수술

지난 여름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팀이 만난 살리당은 벤젠 폭발 사고로 전신에 6도 화상을 입은 13세 소녀이다. 살리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교회 비전트립팀과 연결, 지난 10월 24일 입국하여 그간 5차례나 수술을 하며 믿기지 않는 치료 결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청년부는 살리당 수술비 모금을 위하여 지난 9월 28일 베델하우스에서 자선음악회를 열며 살리당 살리기에 단초를 놓았다.



4. 생명의 우물파기 꾸준히 이어져

생명의 우물파기는 2011년 사랑의 바자 수익금의 일부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9층 쉼터의 수익금 일부와 다락방에서도 활발한 후원이 이루어져 현재 케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4개국 25공의 우물을 파다.

5. 사명자대회 - VIP 초대 새생명축제

2013년 사명자대회 기간 중 전도의 결실인 VIP초대 새생명축제가 지난 11월 15일과 17일 주일에 있었다. 또한 다음 세대로 적극 참여하여 각 교회학교 별 자체적인 VIP초대 새생명축제도 있었다. 이번 VIP 새생명축제는 VIP 5079명을 작정, 790명의 VIP가 교회를 방문하였으며 487명이 결신을 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7.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우리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사랑의 쌀 운동 본부가 펼치는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모아진 쌀은 주로 독거 노인, 미자립복지시설, 무료급식단체 등에 지원 된다. 우리교회는 지난 6월에도 부평역과 장기동 소재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소 주방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비 있다.



9. 흥해작전

올해 흥해작전은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를 주제로 총신대 구약학 교수 박철현 교수와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연인원 18,531명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6. 사랑의 바자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가 9월 12, 13일에 열렸다. 바자의 수익금은 생명의 우물파기와 미자립교회 돕기, 불우이웃 돕기, 탈북난민 돕기, 아가페타운을 지원하는 사역에 사용되었다. 특히 이번 바자는 3주에 걸쳐 실시한 특별 사전 주문 판매행사와 특관을 통해 성도들이 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하므로 많은 수익을 올렸고 헌옷모으기와 판매할 음식을 만드는 일등을 통해 교구가 하나 되어 여느 해보다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평이다.



8. 교구별 찬양 발표

그동안 격년제로 실시되어 오던 교구찬양대회가 교구목사 담당교구별로 연합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형식으로 6월 첫주부터 7월 첫주 사이 총 6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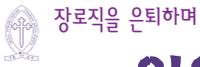


10. 성탄절야제와 성탄축하감사예배

우리교회는 성탄절기를 맞아 어린이찬양예배부(핸드벨), 유아부, 중등부, 사랑부(찬양과 율동), 유년부(엔젤스), 고등부(위십), 청년1부(힐러위십), 초등부(글로리아), 청년2부(러브레티), 유초등부 연합찬양대, 헵시바중창단이 성탄절야제와 오전 9시, 11시 성탄축하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리: 허숙 권사 (편집부)



의의 면류관을 향해

그가 가면 오리라



노승성 장로

사도 바울은 자신 살아온 날들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딤후 4:6~8)

그는 사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수많은 업적과 공로를 세운 노(노) 사도의 마지막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일에 너무나 사명감이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치 못했으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감사가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는 저만치 뒷자락에서 서울교회를 위해 미력하나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영수 장로

한 세기가 바뀌는 2000년, 서울교회가 논현동과 반포동 시대를 마감하고, 대치동 시대를 열었던 12월 25일 입당 감사예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섬김의 봉사가 오늘의 서울교회를 탄생시켰으며, 그 서울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22살의 청년 서울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과 사회의 앞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에 민족의 든든한 방주 역할을 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하며, 미래를 향도할 수 있는 나침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무엘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의 몸 된 신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헌신의 본이 되십시오. 일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퇴의 소감 “서울교회 설립 이념을 꼭 지켜달라..” 은퇴금도 파다하시고 빈손으로 떠나마치고” 제하의 나실 때 세 가지들 당부하신 이종윤 원외고를 청탁받았을 때 금년도 흥박노철 목사님이 전심으로 잘 이어가실 줄 믿고 당회를 비롯한 온 교회와 함께 지켜 나갈 줄 믿습니다.

중에 내 마음속에 에녹이 왜 아들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지었으며 므두셀라 나이 969세로 죽던 해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성경의 증거가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가 가면 오리라...” 므두셀라 이름의 뜻이며 그 이름대로 어김없이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도 서울교회만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세상 교회들처럼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도 나이도 없음을 알고 서울교회를 위하여 어렵고 낮은 곳 어두운 곳을 찾아서 계속 섬김 각오가 있음은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손에 있는 생명책의 마지막 장 끝 줄의 끝이라도 내 이름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 - 사무국에서

2014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과 8층에서 받는다.

2014년 신년하례회

2014년 신년하례회가 1월2일 오전 6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모든 교역자, 시무장로, 직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기 바란다.

통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30일(월) 크로스미디어여행에서 시행하는 한국교회 신앙유산 콘텐츠 한국교회문화자 오디오바 이블 제작에 참여한다. 2014년 1월 2일(목) 미래한국미디어, 1월4일(토) 한국기독교학술원,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이사회 신년하례회 예배설교를 각각한다.
 - 이갑진 장로 2014년 1월1일부로 해병대 전략연구소 소장 으로 취임
 - 주간식당봉사 : 발림선교회(12.29) 안드레선교회(1.5)
 - 금주의 식사, 떡제공 : 오윤걸 집사 김민아 집사, 오선혜 집사 정철웅 집사, 오명걸 집사 가정
- (아버지 오정수 장로 지난 1년간 전장면 회장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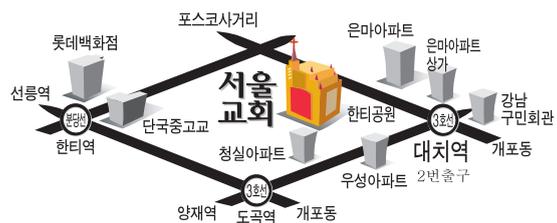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한 새해에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2. 송구영신예배,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회, 신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3. 세계 곳곳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심으로 말은바 사명 잘 감당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젊은이예배	오후 1시 30분
	I부예배	오전 11시
새벽예배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